

CTC바이오, 제네릭 · 개량신약 로열티 50억원

바이오기업인 CTC바이오는 국내 6개 제약기업과 제네릭 및 개량신약의 로열티 계약을 체결해 2006년부터 연간 50억원의 로열티 수입이 기대된다고 12월21일 발표했다.

CTC바이오는 현재 40여종이 넘는 제네릭 및 개량신약을 보유함으로써 동물약품 전문기업에서 제약관련 바이오기업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.

CTC바이오는 체내에서 약물의 효과를 높이고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약물전달 기술(DDS)과 약물코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, 글로벌 화학기업인 BASF와 약물코팅 등에 관한 실무적 기술지원 및 공동생산, 마케팅에 서로 협력하는 계약을 앞두고 있다.

조호연 대표는 “최근 국내 대형 제약기업과 비뇨기질환 관련 복합개량신약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, 계약조건은 계약금 5억원에 출시 후 10년간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받는 조건”이라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05/12/22>